

주일의 말씀

바보스러운 여정



김두신 요한 신부
동인성당 주임신부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외양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각기 귀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한 때 이분들을 삼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천문대와 같은 지적 시스템과 떠나면 여행을 실행하기엔 왕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진리에 응답하는 순수한 믿음의 여정이 출발점입니다.

삼왕들은 큰 별을 발견하고서 위대한 분의 출생을 목격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흥분 속에 별빛을 지표로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휘하의 신하들을 설득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공식 중의 긴급 사태의 해결 방안과 우고시 권력 승계절차에 대한 수많은 회의와 논의가 신하들의 성화로 불필요하게 이루어 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적 계시에 사람들의 의구심과 생존과 권력유지를 위한 암투가 엿보입니다.

이 분들이 장차 겪게 되는 고난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관습차이, 기후풍토와 음식물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통과 지역의 지도층과 점성술사들의 몰이해와 비협조, 여정의 마침과 출생을 보지 못할까하는 우려와 자책입니다.

그들은 휘하에 비서관, 통역관, 기록관, 탐험가, 제반 학자들과 전문가들, 호위 군사들을 대동하고 있었지만(이사 60,3-6참조) 범한 과오와 실책에 대해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

정 속에서 겪게 되는 판단 착오가 성장을 위한 축매제가 되지만 상응하는 대가가 더 많은 고단한 여행이었습니다.

긴 여정에서의 만남은 유난히 밝은 별빛에 어울리지 않는 구유에 누운 아기이며 예측을 못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왕들의 일행 중에 하나님의 낮춘 모습을 목격하고 기뻐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등 갖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바칩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삼왕들과 동행했거나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지만, 탄생의 신비를 몰이해와 왜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삼왕과 헤로데 대왕이 대비됩니다. 정치적 수완과 술책 그 이상으로 현세적 탐욕에 헤로데는 매몰되었던 것입니다.

귀국하는 동안, 낮춘 모습의 하나님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삼왕들의 성령의 설교에 감동과 이해를 얻어 온전히 기뻐했지만,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낮춘 모습으로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음과 찾아가 빈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왕들의 꿈의 이야기와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 사람들의 여정이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왕이든 가난한 목동이든 바보스러운 정도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참조

이사 60,1-6 에페 3,2,3,4,5-6 마태 2,1-12

미신(迷信) 1

- 오늘의 운세 -

하, 요거 볼까? 말까?

교구 사목국

‘오늘의 운세’ - 신문이나 잡지를 펼 때마다 눈에 쪽 들어오는 요것. 타로카드, 사주팔자, 궁합, 취업운, 사업운, 애정운, 학업운... 하, 요것들 참...
구미가 당기지 않으십니까? 당기기는 당기는데 차마 신자라서... 그래도 눈은 결눈질로 자꾸 거기로 가고.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자신과 타협도 해보기도 하고 어찌면 좋을지...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20,3)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계명의 첫 계명. 다 아시죠? 하느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 라는 우리 신앙의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속에 하느님 말고 다른 신(神)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배신이죠. 우상숭배이고 미신(迷信)입니다. 예언자들은 불륜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점(占)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에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것일까요? 점(占)은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모습, 생년월일 같은 것을 통해 과거나 전생 또는 현재나 미래에 숨겨져 있는 일을 미리 알아내고 판단하여 결국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려는 이기적이면서도 나약한 인간심성의 현상입니다. 그 종류는 참 많죠. 자연 현상을 보고 개인의 길흉사를 점치는 자연 관상점,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점치는 몽점, 신령의 힘에 의해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신비점, 율을 던져 결과를 보고 점을 치는 인위점,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주, 궁합, 관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占)이 왜 문제일까요? 결국 점은 하느님께서 주신 내 삶의 경륜과 섭리를 내가 알아보고 내가 좌지우지 해 보려고 수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 또는 미신이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세적인 이익과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보에 계속)



모두 모두

박성규 엘리지오





영성의 향기

오늘의 미사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당성가

103 오늘 아기 예수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파견성가

106 참바람 스치는 마구간

:: 사랑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반대로 그도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혀로 말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숨결과 표정으로도 말하여 잡니다. 침묵으로도 표현 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봉사로, 희생으로, 양보로, 분별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늘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무한한 생명에 자유로이 참여하면서 남에게도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 갑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쳐다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 보아야 하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유일하고 진리이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깊이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게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은 행복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기도와 일



한 젊은이가 늙은 어부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젖고 있던 두 개의 노 가운데 하나에는 기도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그건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란다고 기도를 바치겠습니까?” 노인은 말없이 ‘기도’라고 적힌 노를 가만히 놓아둔 채 다른 쪽 노만 저었습니다. 노인이 노를 젓고 또 저었지만, 배는 그 자리에서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야 젊은이는 우리에게 일이라는 노 외에 기도라는 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율겨온 글입니다. -

"함께 합니다." 마감: 1.17(일)까지 / 문의: 250-3051

교구 사목국에서는 2010년부터 전 교구민의 기도와 마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기도, 영성,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신한 생각들, 프로그램들,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 포상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발성법, 시편성가 연주(회비 만원)-Sr.김정선, 이병삼

• 일시: 1.3(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본당 반주자들을 위한 겨울학교(255-4847)

• 장소: 박수원(연세대 출강), 개강: 1.8(금)부터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 일시: 1.4(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대회합실

때제기도회

• 일시: 1.9(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교구 사회복지 신년교례회

• 일시: 1.9(토) 15: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한국인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일시: 1.19(화)-22(금), 장소: 교구청별관5회합실

•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문의: 010-3823-9007 / 424-1616

대구평화방송 이웃돕기 성금모금

• 대구은행: 009-12-004091 대구공동모금회

• 농협: 301-0035-6466-71 경북공동모금회

• 모금기간: 12.1(화)-1.31(일), 문의: 251-2611

청소년 성령세미나(5대리구) 문의 054-454-2000

• 일시: 1.11(월)-13(수),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제19회 윤일제

•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9일기도 미사, 강론

• 일시: 1.11(월)15:00-20(수)15:00, 장소: 관덕정

• 강사신부: 이상국(크리스로고), 손성호(요셉), 전광진

(엘마), 최경환(F.하비에르), 최재영(시몬), 김태형(에드워드),

이상해(스테파노), 이강연(바오로), 임석환(스테파노)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피정

• 대상: 대학생 직인 남성 1.29(금)-31(일) 2차 2.5(금)-7(일)

중·고등부 1.25(월)-27(수)(선착순 60명)

• 주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 문의 및 접수: 010-9890-8809(조루도비교신부)

마음을 더 가깝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일시: 1차 1.8(금)13:00-10(일)

• 장소: 마리아 피정센터(부산시남구우암2동127-166)

• 강사: 최복도 F.하비에르 신부

• 피정비: 1만원, 부산04501-037520 제티없으신마리아성심

• 문의: 051-634-0228 / 011-9503-0228

동계성소피정 2010년 새학년 기준(신청마감:1.3(일))

• 중1-2: 1.7(목)-8(금)/1박2일, 앞산청소년수련원

• 중3-고2: 1.14(목)-16(토)/2박3일, 청통수련원

• 고3,대학,일반: 1.11(월)-13(수)/2박3일, 한티피정의집

• 문의: 250-3071, 3058 / 010-6776-3071

※기타문의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보동지 영성피정 (※공지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1일 성경피정: 1.14(목)10:00-16:00

• 신약통독피정: 1.16(토)10시~1.17(일)16시

• 영성침묵피정: 1.23(토)14:00-24(일)17:00, 1.25(월)10:00-17:00

• 전체성경통독피정: 1.30(토)14:00-2.1(월)18:00

• 장소: 소보동지(경북 군위), 054-382-0260

제주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 일시: 1.9(토)-11(월), 1.17(월), 2.20(수), 2.8(금)-10(일)

2.21(목)-23(토), 2.25(월)-27(수), 3.8(월)-10(수)

•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 신청: 02-773-1455 성이시돌 피정센터

※ 개인, 구역별장 및 단체 환영

『교구 100주년, 선교 복음의 나팔수-바로로 선교, 피정 연수』

• 일시: 화-토 2-3시간, 장소: 선교센터(계산문화관3층)

• 대상: 본당 20-40명, 지도: 이관석 신부

• 신청: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 본당 전교우 선교연수 별도 신청

어버이 성경학교 평생 교육반 모집

• 일시: 매주 월 10:00-12:30 / 19:00-21: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어버이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지혜서, 아가, 루카복음(심화)

• 문의: 어버이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관덕정 1월 영어 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1.5(화)10:00-12:00 화, 목 강의

• 과정: 사도행전(Acts) 및 레위기(Leviticus)

• 문의: 2540151/010-2578-5535(월)화바2만원(교재비 별도)

노들담 오르프 음악 연구소 단기 오르프 지도자 과정

• 기간: 1.11(월)-13(수)09:30-18:00

• 내용: 오르프 교육 매체를 이용한 유아, 초등음악교육

• 장소: 달서구 상인동 소화어린이집

•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 카페: <http://cafe.daum.net/notredameoff>

미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수강료20만원(교재비포함))

• 기간: 3월-10월 매주화/주건14:00-17:00/야간19:00-21:30

• 대상: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자

• 장소: 부산마리아피정센터(동항성당옆)개강3.2(화)14:00

• 접수: 1.15(금)-2.28(일), 문의: 7740448/010-9620-4820

계좌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푸른평화 겨울방학 캠프

• 일시: 1.11(월)-1.13(수)2박3일, 대상: 초등학생

• 푸른평화겨울방학특강(8주과정, 주1회)

• 통합예술을 통한 집단치료

• 대상: 초, 중학생,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어린이집 조리사, 운전기사 모집

• 조리사자격: 자격증소지 및 유경험자

• 운전기사자격: 대형면허소지 및 유경험자

• 문의: 856-3033

여대생 기숙사 안내

• 대상: 재학중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 [http://www.rcm1892.net\(02-911-7580\)](http://www.rcm1892.net(02-911-7580))

※ 계산서일 임시휴무(1.1(금)-11(월)까지)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말알 후원의미 및 사직 장애인 선교회 월미사	1월 4일(월) 오전11시	계산성당	한국SOS어린이마을	1월 6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군중 후원의미사	1월 4일(월) 오전11시	성모당	1월 후원회월례미사		2층 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4일(월) 오전11시	신영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월 7일(목) 오후3시	성모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1월 4일(월) 낮12시	성모당	미바회미사	1월 8일(금) 오전11시	성모당
푸르실리사파 월례미사	1월 4일(월) 오후7시30분	푸르실리교육관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1월 9일(토) 오후2시	남산성당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 (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미성당 귀속

3대 64년 전통

다이어몬드 예물전문

보석감정 무료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어몬드

커플링 행사 (가나강좌를 받고오세요)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감정사 박제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도로

미성당

앞산 내 거리

☎ 557-9057, 474-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 564-1577, 475-1577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